

길거리서 홀로 월드컵 본 할아버지

길거리에서 홀로 월드컵 중계를 보던 80대 할아버지가 화제다.

아르헨티나 파라나에 살고 있는 카를로스 베하르(82)는 한 기자가 찍은 사진 덕분에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됐다.

할아버지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격돌한 카타르월드컵 4강전 중계를 집에서 멀지 않은 한 가전제품 상점 앞 길거리에서 즐겼다. 평일 오후 4시였지만 중계를 시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라져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찾아간 가전제품 상점도 셔터를 내렸지만 할아버지는 그 앞에 의자를 놓고 전시용 대형 TV로 월드컵 경기를 시청했다.

지역신문 기자는 텅 빈 거리 모습을 취재하다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33도 무더



▲ 문 닫은 상점 앞에서 월드컵 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베하르 할아버지. 사진=twitter(todaboluda)

위 속에 길에서 전시용 TV로 월드컵을 시청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기자는 전했다.

언론의 취재 결과 할아버지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TV가 있지만 유선TV 연결이 불가능해 집에선 월드컵 중계를 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아르헨티나의 조별리그 세 경기도 한 카페에서 봤다.

할아버지는 “아르헨티나 경

기가 열릴 때마다 길거리는 텅 비고 가전제품 상점의 전시용 대형TV에선 중계방송이 나오더라.”면서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 내겐 월드컵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할아버지가 찾았던 가전제품 상점 측은 할아버지에게 대형TV를 선물로 주고 유선TV까지 연결해주기로 했다.

시한부 연인 위해 12시간 만에 마련한 결혼식

암을 선고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내를 위해 12시간 만에 결혼식이 준비됐다.

노리나와 레이 커플은 5년간 커플로 지냈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노리나가 암에 걸리게 되자 암을 완치한 이후로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노리나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은 노리나의 암이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노리나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에 레이는 지금이야말로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6시, 레이는 막 잠에서 깬 노리나에게 키스하며 “우리 오늘 결혼합시다!”라고 말했다. 노리나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



▲ 결혼식 후 가족, 의료진들과 기념촬영 중인 레이 (왼쪽 두 번째)와 노리나. 사진=trueviralnews.com

이냐고 되물었지만 결혼을 통보한 레이는 자세한 설명 없이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 하곤 어디론가 향했다.

12시간 후인 오후 6시, 의료진은 노리나를 병원 예배당으로 데려갔다. 간호사들은 노리나에게 하얀 신부 드레스를 입혔고, 예배당을 방문한 노리나의 친구들이 신부 화장을 해줬다. 30명의 가족,

친구, 의료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노리나와 레이는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했다.

레이이는 “나는 연인이나 약혼자 이상, 노리나의 남편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레이 역시 “레이와 결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 인생에서 최고로 소중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키스만 할 사람 구해요”

想kiss

蹲个在浦东的嘴友。渴渴#kiss

沃沃森军品



寻找嘴友 磁县附近有嘴友吗? 不恋爱, 只打啵

satisfied



南京有嘴友吗? ? ? ?

真的想亲亲了#南京交...

南音~

▲ 쭈이여우를 찾는다는 SNS 게시물. 사진=웨이보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키스는 허락하는 기상 천외한 연애관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일명 ‘쭈이여우’(嘴友·입친구)로 불리는 신종 유행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키스는 허락하되 그 이상의 깊은 관계로 서로를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와 ‘오직 키스만 나눌 상대를 찾는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SNS와 위챗 그룹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

‘쭈이여우’ 관계를 허락할 시, 두 남녀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키스를 나눌 수는 있으나, 성관계 등 그 이상의 관계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일 이 이상의 관계를 상대방이 요구할 시 두 사람의 ‘쭈이여우’ 관계는 그 즉시 중단된다.

‘쭈이여우’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정서적인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NS에 ‘쭈이여우’를 찾는다는 글을 게재한 한 익명의 20대 대학생은 “사랑에 빠질 경우 상대방을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하고, 때에 따라서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청년들은 진짜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해 보길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 유경숙 치과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